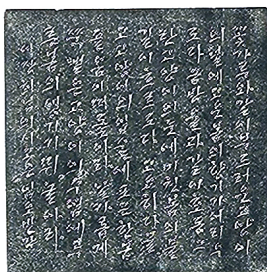


○ 〈봄은 고양이로다, 여름은 개로다〉 ○

두계절의 짐승을 그린 시학(詩學)의 풍경

한시 · 글운호 이진호
전각 · 서예 고은임오빈



꽃간루와 같이 부드러운 양의 입술에 고운 봄의 향기가
여디우도나 구방을 같이 흐르는 감고 양의 눈에서 친 봄
의 불꽃이 흐르도나 고요히 나를 감고 양의 입술에 흐르는
봄들이 떠돌아라

이창희님의 시고운 양의 입술에

이창희

이창희

대한민국 초기 모더니즘 시인 이장희의 이 한 줄은 계절의 감각을 고양이의 몸짓에 실어 전해 줍니다. 봄의 향기, 생기, 줄음, 설렘, 그리고 부드러움이 고양이라는 동물에 감각적으로 투사된 이 시는, 단순한 자연 묘사를 넘어 감각적 비유의 교과서라 불릴 만한 작품입니다.

얼마 전, 이 시를 전각, 방각과 흘림체 서예로 풀어낸 작품 한 점을 접했습니다. 고은 임오빈 선생의 손에서 재해석된 <봄은 고양이로다>는 전통 서화와 현대 감각이 만나 빚어낸 예술이었지요. 고양이의 유려한 곡선, 봄꽃과의 조화, 그리고 한 구절씩 새겨진 시문은, 붓과 칼이 만들어낸 새로운 시적 풍경이었습니다.

그 작품을 감상하며 저는 문득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 그렇다면 여름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

고민 끝에 제게 떠오른 답은 ‘개’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여름 복더위 속에서 그늘에 엎드려 있는 한 마리 늙은 개 말입니다.

봄의 생명력처럼 여름의 피로감도 분명한 감각이며, 그 감각을 가장 먼저 피부로 감지하는 존재 중 하나가 바로 개라는 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계절의 감각을 개의 감정과 행동에 실어 시로 써 내려가고 싶다는 충동이 찾아왔고, 그렇게 시를 짓고, 한시로도 표현해 봤습니다.

삼복의 그림자

기나긴 장마가 지나고
복날은 스멀스멀 다가온다.
뒹마루 밑 누렁이는
푸근한 패종시계 소리에도
화들짝 어깨를 움츠린다.

삼복더위야 건달 만하건만,
곧 닥쳐올 올여름 세 번의 위기를
무사히 넘겨야 한다는 생사의 중압감에
대가리를 파묻고, 숨소리조차 줄인다.

삼복더위는 개의 본분을 흔들어댄다.
누렁이는 낮선 발소리에도 귀만 살짝,



묵묵히 고개를 파묻고
몸을 더 깊이 움츠린다.
늙은 개는 한여름의 위기를 본능으로 안다.

허나 철모르는 강아지는
타들어가는 마당을 사방팔방,
땅을 불러 먼지를 피워내며
땡볕 위를 종일 누빈다.

누렁이는 눈을 반쯤 뜨고
그저 생각한다,
“저놈도 한두 해 넘기면,
한여름 불볕더위가
더워서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을...”



이 시는 여름이라는 계절의 무게를, 개라는 동물을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봄이 고양이의 유연함과 촉각을 닮았다면, 여름은 그늘에 었드린 개의 숨결 속에 살아 있지요. 특히 늙은 개는 ‘복날’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세 번의 위기를 감지합니다. 젊은 강아지가 여름을 뛰놀 듯 즐긴다면, 늙은 개는 그 계절을 견뎌냅니다.

이 시의 정서는 한시로도 이어졌습니다. 옛 선인들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내면을 다잡았던 그 마음처럼, 저는 복날을 살아가는 짐승의 감각을 한시로 옮겨보았습니다.

三伏影 (삼복경)

삼복의 그림자

長陰低語伏熏來 (장음저어 복훈래)
기나긴 그늘 속, 낮게 속삭이며 더위가 스며들고

老犬驚聞掛響哀 (노견경문 괘향애)
늙은 개는 괘종소리에 놀라 귀를 세웁니다

燥熱沙庭患狗戲 (조열사정 재구희)
달궀진 마당, 철모르는 어린 강아지는 흙을 파헤치며 놀지만

惟思耐暑命無災 (유사내서 명무재)
늙은 누렁이는 오직 무사히 이 여름을 넘기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장희 시인의 <봄은 고양이로다>. 그 속의 고양이는 계절을 몸으로 유명하며, 향기와 불꽃, 졸음, 생기를 전합니다. 봄은 고양이의 살결과 수염 끝에서 피어났다면, 여름은 개의 등을 타고 조용히 흐릅니다.

봄은 고양이로다

이장희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香氣)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문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쪽 뺨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生氣)가 뛰놀아라



고양이는 봄을 끌어오고, 개는 여름을 건넵니다.
그 둘 사이에 계절은 감정이 되고, 몸짓이 되며, 시가 됩니다.

계절의 짐승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는 여름과 또다시 찾아올 봄을
조용히 함께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시·글 윤호 이진호(雲湖 李進浩)

- KBS 남산송신소 근무 중
- KBS 사군자회 회원
- 서예/문인화 교육강사 1급

전각·서예 고은 임오빈(高恩 任五彬)

- 대한민국 소품대전 초대작가
- 대한민국 미술대전 문인화부문 입선
- 한국 캘리그래피 회원
- 서예/문인화 교육 강사 1급